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 펼쳤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진 긍정식이라 한다. 전진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진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진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진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진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4.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5.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③ ‘굴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④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 행크스: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④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7.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8.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④ ‘꿀은 맛있다.’가 꿀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색하는
- ② ㉡: 제시하지
- ③ ㉢: 전파했다
- ④ ㉣: 발산하는
- ⑤ ㉤: 공개하여

 **MEMO**

(가)

1 문단

1)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 펼쳤다.

1-1)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도덕 문장’, ‘진리 적합성’ 등의 개념이 정의되었다. 지시적 의미를 통해 정의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자. ‘도덕 문장’의 경우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어, 정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도덕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다. ‘도덕에 관한 문장’이라는 지시적 의미를 토대로 정의를 납득하면 된다.
- ▶ ‘진리 적합성’의 정의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이다. 즉,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가지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 것이다.

1-2) 방향성 잡기

- ▶ ‘전통적인 윤리학’은 쉽게 말하면 ‘옛 윤리학’이다. 뒤이어 나온 새 견해가 있지 않으면 ‘전통적’이라는 수식은 보통 붙지 않는다. 즉,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이론’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만족스럽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윤리학의 한계이다. 생각해 보면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 ▶ 이렇게 되면 윤리학은 답이 없는 물음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 된다. 애초에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문장인데,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증거를 찾고 있던 셈이니 말이다.
- ▶ 이때 나오는 질문은 “**에이어는 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는가?**”이다. 기존 윤리학의 노력을 부정하면서까지 말이다.

2 문단

2)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1)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의미를 내포한다.

- ▶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은 모두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의 하위 개념이다. 즉,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은 모두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 모두 ‘~에 의해 검증’된다고 설명되는데, 결국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위 개념인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에는 ★를 남겨 두도록 한다.
- ▶ 더하여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라고 하였으니,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한다.**

2-2)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분석적 문장**’의 정의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문장’이다. 결국 문장을 분석하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검증된다는 의미이니, 지시적 의미를 통해 정의를 납득하면 된다.
- ▶ ‘**종합적 문장**’의 정의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문장’이다. 지시적 의미를 활용하면, ‘경험적 관찰을 종합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되는 문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출 플러스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_ 2017학년도 수능

ex)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개념 플러스

경험적 관찰?

- ▶ 경험적 관찰은 감각적 관찰을 의미한다. ‘경험’과 ‘감각’은 많은 경우 같은 의미로 사용되니 알아두도록 하자.



한 걸음 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예문	삼각형은 세 각을 가진다.	우리 반 친구들의 평균 몸무게는 60kg이다.
설명	삼각형 ▶ '세 각'을 가지는 도형	✓ 우리 반 철수는 70kg + ✓ 우리 반 명수는 80kg + ✓ 우리 반 길수는 30kg ▶ 반 평균 몸무게는 60kg!

2-3)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도덕 문장이 분석적 문장도 아니며 종합적 문장도 아닐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 이 지점에서 '도덕 문장은 왜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닌가?'로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다.

3)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에이어의 입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고, 여기에 더해 '도덕 문장은 종합적이지도 않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3-2)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부연 상술 납득하기

- ▶ '선은 A이다.'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련된 도덕 문장이다. 다만 '선'이라는 개념을 분석한다고 해서 술어 'A'가 튀어나오지는 않는다. 즉, '선'은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며 '선은 A이다.' 또한 분석 명제가 아니다.
- ▶ '선은 A이다.'는 경험적 관찰로도 검증될 수 없다. '선'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관찰하겠는가. 즉, '선은 A이다.'는 종합 명제라고 할 수 없다.

- ▶ 결국,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분석 명제도 아니고 종합 명제도 아니다. 따라서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문단

4)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4)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의미는 '참' 또는 '거짓'의 진릿값을 갖지 않을 테니, 정서적 의미를 갖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5)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5-1)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표현적 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용법이고, '기술적 용법'은 사실을 기술하는 용법이다.

5-2)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에이어의 주장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다. 즉,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문장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다. 에이어는 이를 사람들이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에이어가 말하는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 문장이므로, 도덕 용어를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즉,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사람들이 '기술적 용법'으로 혼동하여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 ▶ 위의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아래 내용은 매우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예상한 흐름대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 사고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걸까?'하는 의문이라도 도출해야 한다.

4 문단

6)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6) 예시는 일반론의 재진술이다.

- ▶ 사람들이 “‘표현적 기법’과 ‘기술적 용법’을 혼동하여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라는 에이어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일반론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일반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시를 통해 일반론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하자.
- ▶ ‘도둑질은 나쁘다.’를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으로 본다면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술이라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니 도덕 문장이라고 할 수 없다.
- ▶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종합적 명제’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 문장의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라면 위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게 된다.

7)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7)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도둑질은 나쁘다’를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으로 본다면, 도덕 용어가 ‘표현적 기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둑질은 나쁘다’는 에이어가 주장하는 ‘도덕 문장’에 해당한다.
- ▶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도덕 주체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니 말이다.
- ▶ 결국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

1 문단

8)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8) 질문 던지기

- ▶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은 무엇인가?’
- ② 이것이 윤리학의 어떤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는가?

지문의 구성상 ①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제시된 후, 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①과 ②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①에 대한 설명에 매몰되어 ②의 존재를 잊으면 곤란하다.



한 걸음 더 (가), (나)형 세트, 비판적 독서

- ▶ (가), (나) 형 지문은 비판적 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은 (가)에 제시된 ‘에이어’에 대한 비판일 가능성이 높다.

9)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9) 지시적 의미를 통해 정의 파악하기

- ▶ ‘전건 긍정식’은 전제인 ‘P이면 Q이다’와 ‘P이다’가 참이면 결론인 ‘Q이다’가 참이 되는 논증이다. ‘전건’의 ‘전’은 ‘앞’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서 앞에 위치하는 ‘P’를 참이라고 가정하니, 대강 ‘앞에 있는 P를 긍정하는 식’ 정도로 지시적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사실 ‘전건 긍정식’은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개념으로, 기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쉽게 이해했어야 한다.)
- ▶ 다만 지시적 의미를 동원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전건 긍정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실패했다면 별도의 표시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후 예시가 제시된다면 예시를 통해 ‘전건 긍정식’을 이해하되, 예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예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출 플러스

전건 긍정식 _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ex)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10)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10)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8)에서 제기했던 물음 ㉠에 대한 답이 제시된 대목이다.
- ▶ 전건 긍정식의 P는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전건’에 해당한다(앞에서 든 조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의 전건은 ‘굴은 맛있다.’이다. 그런데 ‘굴은 맛있다.’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조건문 안에서 쓰일 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위 대목의 요지이다(‘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의 예시도 마찬가지). 즉 **단독으로 쓰일 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라면 조건문 안에서 쓰일 때는 해당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 이 경우 전건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똑같은 문장처럼 보여도 의미가 서로 다르니 말이다. ㉠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이것이다.

11)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11)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가)에 제시되었던 에이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대목이다. 위 제시된 예시들에서는 전건 P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감정을 드러내지만, 조건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각 (가) 지문에 제시된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에 해당한다.
- ▶ 즉,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 모두로 쓰일 수 있다는 에이어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다.”

or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 ▶ 이는 분명한 ‘문제 상황’이며, 지문의 완결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지문은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라는 문장으로 출발했으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는 방안보다는, 이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같은 사고 과정에 따라 ‘행크스’가 에이어의 견해를 비판하는 흐름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등급의 독해]

- ▶ 에이어의 견해를 고수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행크스’가 이를 비판할 것을 예상하고 내려가기.

[3등급의 독해]

- ▶ 에이어의 견해를 고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행크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 갖고 내려가기.



한 걸음 더 형식's Comment

- ▶ (가)의 내용을 아주 잘 읽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덕 용어가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이때는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는 ‘도덕 문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 ▶ 이와 같은 에이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전건인 P는 ‘표절은 나쁘다’와 같이 감정을 표현한 문장일 경우,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즉,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이 루트로 지문을 이해하려 시도한 학생은 3)의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뚫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P가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을 텐데, 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느껴졌을 테니 말이다. 이 경우 빠르게 이해의 방향을 틀어 주어야 한다.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지문과 다투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전건이 단독으로 있을 때와 조건문 안에 있을 때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전건 긍정식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겠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덕 용어의 용법을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으로 나눈 것 또한 예이더다. 필자가 ⁴⁾에서 말한 ‘예이더의 윤리학 견해’는 이 지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2 문단[A]

12)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12-1)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 납득하기

- ▶ 윗글은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을 ‘문장의 본질이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강 문장이 대상에 속성을 부여해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 ▶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이다.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여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런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 ▶ 인문 제재에 쓰이는 용어들은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소 자의적일 수 있다. 이 경우 확실하게 납득한다기보다는 일단 정의를 받아들이고, 후에 해당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면 계속해서 정의를 끌고 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즉, ‘판단적’에 대한 지문의 정의를 납득하지 못했다면 이후 등장하는 ‘판단적’은 지문의 정의인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으로 바꾸어 읽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12-2)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말은, 문장이 단독으로 있든 조건문 안에 포함되어 있든 문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 예이더의 견해를 비판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읽을 수 있다면 ‘표절이 나쁘다’를 전건으로 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이해가 어렵다면 뒤 내용을 더 읽어보자(이해가 되었어도 읽기는 해야 한다.. ㅎㅎ).

13)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13)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도덕 문장 또한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기에, 판단적 문장이며,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 예이더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지점이다.
- ▶ 도덕 문장은 조건문에 포함되었을 때와 단독으로 진술될 때 모두 판단적이므로 내용의 차이가 없다. 즉, 예이더의 주장처럼 ‘표현적 용법’이니 ‘기술적 용법’이니 하면서 내용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며, 이에 따르면 예이더의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

14)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14) 일관된 전체로 이해하기

- ▶ 침착하게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의 체력이 남았다면 확실하게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 다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핵심 내용은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뒤에 붙은 사족은 확인하여 풀어도 큰 지장이 없다.
- ▶ P가 조건문 안에 있을 때와 단독으로 진술될 때의 차이점을 서술한 대목이다. 방금까지 도덕 문장이 조건문 안에 있을 때와 단독으로 진술될 때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질감을 느껴야 한다. (대강 “아니 똑같다고 하지 않았냐.. 야마가 돈다..” 정도로.)
- ▶ ‘굴은 맛있다’는 ‘굴’이라는 대상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만 이 문장이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 ‘굴은 맛있다면’이 된다면 ‘굴’이라는 대상에 ‘맛있다’라는 속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다(굴이 맛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니, 맛있다는 속성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대상에 속성을 부여한다는 ‘판단적 본질’이 조건문 안에서는 발현되지 못한다. 하지만 본질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다. 문장 자체는 여전히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

용을 지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14) 추가 이해

- ▶ 특정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구체적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시는 친근하되 극단적 일수록 좋다.
- ▶ ‘철수가 못생겼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이 문장은 철수에게 ‘못생겼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이므로 판단적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철수가 못생겼다면 난 그의 뺨을 치겠다.’라는 조건문의 일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조건문 안에 들어간 ‘철수가 못생겼다.’는 단순한 가정일 뿐, 실제로 철수가 ‘못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장 자체는 ‘철수가 못생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판단적 본질은 유지된다.

4.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선지별 선택 비율(화법과 작문)				
①	②	③	④	⑤
11%	6%	15%	44%	22%

선지별 선택 비율(언어와 매체)				
①	②	③	④	⑤
6%	3%	9%	60%	19%

정답 해설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⁵⁾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두 용법을 가르는 기준은 감정을 표현하는가 사실을 기술하는가이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가) ⁶⁾에 따르면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문장은 사실을 기술하므로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가) ⁷⁾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가) ²⁾에 따르면 분석적 문장은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문장이고, 3)에서는 술어가 주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분석적이라고 설명한다.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로 검증되는 문장이 곧 분석적 문장이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 (가) 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오해는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다.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혼동한 결과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5.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선지별 선택 비율(화법과 작문)				
①	②	③	④	⑤
10%	10%	20%	20%	37%

선지별 선택 비율(언어와 매체)				
①	②	③	④	⑤
7%	7%	21%	14%	48%

정답 해설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 (나) ¹⁴⁾에 따르면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은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하지만, 그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화자가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 곧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인데, 이때에도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굶은 맛이었다면 굶은 비싸다.’에 포함된 ‘굶은 맛이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나) ¹⁴⁾에 따르면 조건문에 포함된 ‘굶은 맛이었다.’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 발현되지 못할 뿐 판단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나) ¹²⁾에 따르면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며, ¹³⁾에 따르면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되어도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그렇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굴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나) ¹⁴⁾에 따르면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발현되지 않는 것은 속성을 부여하는 화자의 행위이지 문장이 지닌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나) ¹²⁾에 따르면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 [A]가 갈아 둔 전제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선지별 선택 비율(화법과 작문)				
①	②	③	④	⑤
8%	7%	16%	54%	13%

선지별 선택 비율(언어와 매체)				
①	②	③	④	⑤
5%	4%	10%	66%	13%

□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 행크스: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정답 해설

- ④ [진술 3]에 대해 에이어 —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 에이어가 [진술 3](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에 옳다고 볼 것이라는 방향 자체는 문제가 없다. (나) ¹⁰⁾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조건문에 포함될 때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고, 이는 도덕 용어의 두 용법을 나눈 에이어의 견해와 맞물린다.

▶ 어긋나는 것은 그 이유다. 에이어에게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가) ³⁾, ⁷⁾). (가) ²⁾에 따르면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하는데, 도덕 문장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쓰이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는 이유는 에이어의 견해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진술 1]에 대해 전통적인 윤리학자 —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가) ¹⁾에 따르면 전통적인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객관적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한 근거가 도덕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술 1](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에 옳다고 볼 것이므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진술 1]에 대해 에이어 —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가) ⁷⁾에 따르면 에이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진술 2]에 대해 에이어 —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 (가) ²⁾에 따르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다. (가) ³⁾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고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도 없으므로,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진술 2](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를 부정하는 이유로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진술 2]에 대해 행크스 — 옳다. 도덕 문장은 대상에 속성이 나타나는 내용을 지녀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 ▶ (나) ¹²에 따르면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뜻이고, ¹³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행크스는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므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선지별 선택 비율(화법과 작문)				
㉠	㉡	㉢	㉣	㉤
27%	16%	18%	23%	14%

선지별 선택 비율(언어와 매체)				
㉠	㉡	㉢	㉣	㉤
35%	15%	15%	19%	14%

㉠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 ▶ (나) ¹⁰에 따르면 ㉠은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겨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깨진다는 지적이며, 이것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정답 해설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 (나) ¹⁰에 따르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것은 에이어의 견해가 옳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곧 에이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그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 ▶ ㉠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까닭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전건 긍정식이 에이어의 견해를 따를 경우 타당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는 데 있다. 인과를 거꾸로 세운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

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 (나) ¹⁰에 따르면 P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면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한다. 뒤집어 보면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것은 P가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나) ¹¹에서도 에이어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그 타당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 (나) ¹⁰에 따르면 두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결론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 내용의 차이가 타당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타당하려면 두 P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 (나) ¹⁰에 따르면 ㉠의 문제는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발생하며, 그 예로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굴은 맛있다.'가 제시된다. 도덕 문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 ▶ (나) ¹³에 따르면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은 두 P 사이의 내용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그 차이가 없다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8.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①

선지별 선택 비율(화법과 작문)				
①	②	③	④	⑤
23%	11%	20%	28%	16%

선지별 선택 비율(언어와 매체)				
①	②	③	④	⑤
31%	11%	17%	22%	16%

<보 기>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정답 해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 <보기>는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찬성이라는 태도를 표현한다고 본다.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전제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일 뿐이다.
- ▶ 두 주장은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 상충한다고 본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 (나) 9)에 따르면 전건 긍정식은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반면 <보기>는 태도들에 참·거짓이 없다고 보고, 태도를 지니면서 결론에 반대하는 것이 비일관적이라는 뜻으로 타당성을 규정한다. 타당성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상충한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 (가) 1)의 전통적인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 <보기>는 도덕 문장이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며 그 태도에는 참·거짓이 없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을 세우려는 입장과 주관적 태도로 보는 입장은 함께 설 수 없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 (나) 10)에 따르면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보기>의 ‘자선은 옳다.’ 역시 화자의 찬성이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문장이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주장은 같은 결이므로 상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 (가) 7)에 따르면 에이어는 ‘도둑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한 도덕 문장이라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보기> 역시 ‘폭력은 나쁘다.’가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하며 그러한 태도에는 참·거짓이 없다고 본다.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에 참·거짓이 없다는 데서 두 주장은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선지별 선택 비율(화법과 작문)				
①	②	③	④	⑤
2%	87%	3%	4%	1%

선지별 선택 비율(언어와 매체)				
①	②	③	④	⑤
1%	92%	1%	2%	0%

정답 해설

- ② ㉠: 제시하지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 내놓지

못했다

- ▶ ㉔ ‘내놓다’는 답을 찾아 밝혀 보인다는 뜻이다. 의견이나 답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의 ‘제시하다’로 바꾸어도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MEMO**